

소수치가 잔존하는 엇갈린 교합의 수복증례

최훈달 *, 권공록, 최부병, 최대균, 우이형, 이성복, 양홍서
(경희대학교 보철과)

소수치 잔존증례인 경우는 상하악 잔존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두감합위를 잃고 있는 엇갈린 교합이 대부분이다. 이 증례의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것은 잔존치의 지대치로서의 진단과 지대장치 선택의 문제, 그리고 상실된 교합고경의 회복 방법의 문제이다.

overdenture의 적응증은 소수치 잔존 증례이지만, 주요한 적응증은 잔존치 수에 한하지 않는다.

1. 우식과 치주질환의 진행에 의해 치관-치근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증례.
2. 정출과 경사등의 위치 이상에 대해서, 기능적 및 심미적인 요구로부터 교합평면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증례
3. 심미적 요구에서 clasp등을 외관상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증례등이 overdenture의 적응증이라 할 수 있다.

overdenture의 지대장치에는 konus crown, coping telescope, 치근 attachment(OPA attachment, magnet attachment)등이 있다. magnet attachment는 유지력을 확실히 얻고 싶은 잔근치에 이용하며, 엇갈린 교합에서는 지지와 안정을 요하는 다른 지지 장치와 병용하는 것이 좋다.

vertical dimension을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기계적인 방법과 생리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 중,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은 생리적인 방법인 발음과 심미성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본 증례에서는 상악에는 #13, #14, #15, #16, #17이 하악에는 #33이 남아 있는 멀리 떨어진 엇갈린 교합으로 #15, #16, #17은 과잉 맹출 및 치주 질환, 교합평면에 방해 되어 발거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3, #14, #33은 앞으로 제작할 보철물의 지대치로서는 치관-치근비를 개선하고 유지력 증강을 위해 magnet attachment를 하기로 결정하고, lip support와 상실된 교합고경의 회복을 위해 overdenture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소수치가 잔존하는 엇갈린 교합에서 magnet attachment overdenture를 통한 완전 구강회복의 성공적인 예를 발표하고자 한다.